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

“서로 받을 씻어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온갖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부활하신 그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죽음의 문화,
절망과 좌절, 대립과 분쟁이 극복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롭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이 된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은 지난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계
기로 시작된 운동으로서 성체청사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를 실제의 삶과 연
결시키자는 한국 교회 고유의 생활실천운동입니다.

본부는 그동안 이 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 성체성사의 신비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사랑과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
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왔습니다.

전세계 50여 나라에서 지구촌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
및 인도적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구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단기로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피앗누리 프로그램과 우리의 손길이 필
요한 국가에 장기 국제자원 활동가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또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운동, 헌혈운동, 백혈병·난치병 아
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장기이식대기자 및 무료개안 진료비 지원 사업
과 더불어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의 소
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의 실제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본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과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정기후원 신청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02 774 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 탄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최형규 신부가 17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3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 조영인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이야말로 나눔의 모범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할 때도, 지금도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신청했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3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탄생했습니다. 본부는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교회 안팎에서 기증희망자 모집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4천여명이 기증희망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신분이 2014년 3월로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스러운 300번째 기증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17(월), 삼성서울병원 2층 헌혈실.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젊은이가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전할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의 주인공은 29세의 조영인 씨로, 본부를 통한 3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의 주인공입니다.

영인씨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할 때도, 지금도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말초혈 조혈모세포로 기증을 하다보니 저는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데, 생명을 살린다니 잘 믿어지지 않네요”라고 얘기하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신청했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는 영인씨. 참으로 겸손하고 건강한 청년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본부가 주관한 가천대학교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 당시 친구와 함께 기증희망 등록을 했고, 3년 9개월 만인 올 2월 초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자가 일치하는 수혜자가 나타나 실제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영인씨가 기증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환자에게 이식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야

말로 부활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혈액암은 3기 이상 심각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고 기증자의 건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 비율은 턱없이 낮아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부분부장 최형규 신부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신 영인씨야말로 나눔의 모범 사례”라며 “물질적인 나눔은 확산되고 있지만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인씨에게 더욱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본부는 올해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

참여문의 02 727 2268

조혈모세포는 피를 만들어내는 엄마세포입니다. 비혈연간의 조혈모세포가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증희망등록을 해야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만 18세~40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사람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서올레지아 꾸리아 간부들이 오픈스페이스 방식의 주민토론회를 통해 자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랑과 관심이 자살 막는다

중서올레지아,
구파발성당
자살예방실천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자살예방 주민토론회 참가자들이 전하는 자살예방실천사항

- ★ 내 아이에게 사랑 표현하기
- ★ 대자녀 돌보기
- ★ 모임 등 공동체와 멀어진 이들에게도 안부 전하기
- ★ 힘들어하는 이에게 상담전화나 상담소 안내해 주기
- ★ 소공동체 모임 때 자살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 ★ 인터넷으로 희망 댓글 달아주기
- ★ 자살예방 관련 교육 참여하기
- ★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 일주일에 1~2번 이상 대화하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자살예방법을 고민하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이후 일주일 사이 가족 동반자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본당과 반·구역 등 신자 공동체가 우리 사회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제1회 중서올레지아 꾸리아 간부 50여명, 제2회 서울 구파발성당 신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이라는 주제 아래 자살예방주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는 자살예방전문가가 아닌 일반 신자들 스스로 자살예방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솔직하고도 현실적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 신자

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선다면, 적지 않은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가톨릭교회는 본당마다 반·구역·레지오마리에 같은 확실한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망을 통해 주변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간다면 자살을 막는데 상당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센터는 이날 토론에서 언급된 의견을 수합,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중서올레지아꾸리아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 구파발성당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픈스페이스란?** 북미 조직전문가 해리스 오웬이 커피 브레이크에서 영감을 얻어 창안한 것으로, 틀과 격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희망을 여는 개인상담 안내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모든 것들이 캄캄한 암흑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 **대상** 자살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 **상담비** 무료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1회 50분)
- ★ **운영시간** 월 ~ 금요일 (10:00 ~ 17:00)

※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 318 3079로 문의해 주세요.

생애첫기부 따뜻한 세상 만드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생애첫기부

2013.03.16생	父 강방현	母 윤지현	강다연
2013.12.08생	父 권영우	母 김지현	권승오
2010.01.02생	父 가석권	母 박주원	기정호 그레고리오
2007.02.05생	父 김준일	母 강현지	길다인 카리타스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정은경	김동욱
2012.02.15생	父 김영진	母 이은경	김리원
2013.04.03생	父 김선재	母 최현정	김서울
2013.03.05생	父 김영원	母 권수진	김세준 그레고리오
2012.12.31생	父 김두성	母 이수현	김소민
2013.12.05생	父 김기욱	母 이지현	김용준
2013.03.17생	父 김진범	母 이강림	김은수
2013.03.14생	父 김준우	母 소유진	김은우 다니엘라
2013.11.29생	父 박기덕	母 오성희	박다은 안드레아
2013.03.20생	父 박주호	母 정미옥	박서연 마리스텔라
2013.03.18생	父 박요안	母 최영은	박서현 요셉이나
2013.02.02생	父 박은철	母 이윤실	박소윤
2013.03.07생	父 박주환	母 이강림	박솔희 비오
2013.04.13생	父 박성훈	母 최성희	박재무 모세
2013.04.02생	父 박준용	母 김세정	박재운 레오폴도
2013.03.25생	父 백승훈	母 왕문영	백재현
2013.03.24생	父 송경환	母 송양지	송지용
2012.04.05생	母 김민혜		연서희
2004.09.10생	父 오병이	母 김현정	오예은 글라라
2013.03.13생	父 오지석	母 김진영	오유찬
2004.12.30생	父 오민석	母 최병희	오윤아 율리아
2009.02.01생	父 오민석	母 최병희	오윤지 글라라
2008.09.07생	父 오병이	母 김현정	오지은 레지나
2013.04.05생	父 우기철	母 김형진	우서진
2013.03.11생	父 윤지훈	母 이려진	윤은재 키아라
2013.11.18생	父 이종섭	母 이혜령	이다니엘
2013.11.30생	父 이대희	母 방지연	이민성
2013.04.05생	父 이준영	母 조아리	이서하 힐데가르트 폰 빙엔
2013.04.26생	父 이우재	母 최윤미	이소민
2013.09.29생	父 이동선	母 황서연	이시우
2013.01.27생	父 이종규	母 유소연	이에서 로셀리나
2013.02.22생	父 이용출	母 박경희	이윤지
2013.03.18생	父 이규호	母 전재은	이종윤 프란치스코

2013.03.05생	父 이상우	母 유영진	이진아
2013.03.21생	父 장현석	母 정효빈	정지훈
2013.12.06생	父 정덕화	母 이은진	정연서 릴리안
2011.11.01생	父 정상현	母 송현진	정예찬 미카엘
2013.02.27생	父 정성용	母 백수정	정우혁
2013.11.25생	父 정진석	母 이인화	정아현
2013.04.22생	父 조광재	母 김미선	조예서
2013.01.03생	父 조원학	母 장미라	조용준
2013.03.08생	父 조현열	母 이진아	조운우 다텔
2007.02.19생	父 지광문	母 정희승	지영우
2013.02.21생	父 진성화	母 이윤진	진수영
2013.04.06생	父 진동섭	母 문아미	진여운
2013.03.13생	父 최지완	母 김희원	최윤
2013.08.11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한석현 알렉산데르
2013.12.22생	父 한승훈	母 김민경	한성욱
2013.03.20생	父 한동수	母 석보경	한솔 윌리엄
2011.08.20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한정현 대전 안드레아
2012.09.02생	父 황선용	母 이정진	황리나 안젤리나

두번째 기부

2012.02.18생	父 김종문	母 정희정	김준서 라파엘
2012.03.26생	父 박광진	母 박봉정	박소윤 요안나
2012.03.06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박지율
2012.03.17생	父 신윤수	母 이윤정	신희성 파트리시오
2012.03.18생	父 유수영	母 정은을	유승주 사도요한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이지후
2013.12.04생	父 이진호	母 조갑희	이해인
2008.02.13생	父 임성익	母 김미리	임지호 발렌티노
2012.03.20생	父 조재범	母 도해리	조서윤 그라시아
2012.03.04생	父 조운형	母 최나미	조은우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승은	최다인 로사

세번째 기부

2011.03.09생	父 정운용	母 김애리	정성하 요셉
2007.09.26생	父 조현열	母 이진아	임학 축하 기부
1994.03.12	결혼기념일		조은수 노엘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나민구 베드로, 김은경 그라시아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 727 2267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해밀"가족 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함께 합니다.

· 문의 | 02 921 5093

[가톨릭레드리본]

HIV/AIDS 감염인을 위한 가톨릭레드리본의 활동

- HIV/AIDS노숙인 지원사업: 감염인 점심 무료 제공
- 재가복지: 개인 심리 상담
- 월례미사 / 위령미사
- 자활지원: 자연체험학습 - 문화체험프로그램
- 쉼터연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 753 2037, 8 / www.redribbon.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나눔기업 신청서 예쁘게 디자인된 헌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헌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100호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송화정
101호점	대전 동구 성남동 베르사체 호텔
102호점	서울 동대문 용두동 파워라인
103호점	경기 의왕 왕곡동 카페 사인
104호점	경북 경산 대평동 통돼지무식할어구이
105호점	전남 목포 옥암동 맛나 감자탕
106호점	서울 구로 구로동 일라레 레스토랑(구로점)
107호점	부산 동래 사직동 종각집
108호점	충남 서천 장하읍 장항삼성의원
109호점	인천 동구 송현동 홈플러스 송현점
110호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노커피
111호점	서울 서초구 신원동 산일애누구
112호점	대구 중구 동성로 화담
113호점	서울 강북 미아동 (주)포엘 anc
114호점	충남 당진 석문면 면천 추어탕
115호점	서울 동대문 이문동 한솔 외대구내문구점
116호점	서울 은평구 신사동 주연미용실
117호점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노원성모정형외과
118호점	경기 성남 신흥동 라파엘외과
119호점	서울 성동 성수2가 3동 한양루마 엄암식내과
120호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베이비벨
121호점	서울 관악구 중앙동 인스토어
122호점	경기 고양 성사동 모델가사
123호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엘리트그림코리아
124호점	경기 성남 삼평3동 (주)랩지노믹스
125호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이스생병보험
126호점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원자프라자약국
127호점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지미디어
128호점	경기 고양시 덕이동 루이까슬텔 일산점
129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동 황금부동산
130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감나무집
131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아름다운 사진관
132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아꾸아꾸
133호점	경기 양주시 삼송동 (주)루이힐스 C.C
134호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웨이브테크코리아

※ 기준: 2013. 10 ~ 2014. 3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 현재 약 160여 개의 나눔가게·나눔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 727 2263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52,208명

2014. 3. 31 현재

- ★ 자동이체신청 | 02 774 3488
- ★ 지로 | 7522277
- ★ 후원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우리은행 | 454-005324-13-001
- 신한은행 | 140-001-982286
- 국민은행 | 083-01-0309-453
- ★ 인터넷뱅킹 | www.obos.or.kr
- ★ ARS | 060 700 1117
- 외환은행 | 061-22-03709-4
- 하나은행 | 850-910006-09104
- 농협 | 386-01-015833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문의 | 1599 3042(생명살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인상담 신청 및 문의 | 02 318 3079
사이버 상담 | www.3079.or.kr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oboscorea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